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최수현¹⁾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 분위가 상승할수록 자녀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이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실질적 소득 수준을 떠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녀의 기대에 따라서도 진학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인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의한 영향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대 효과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가 여전히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I. 서론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달라진다면 교육은 사다리 역할보다는 세대 간 소득이전성을 강화시키는 장벽 역할로 그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현대사회에서 교육 수준은 한 개인의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정·환경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부자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현상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지 진학하지 않는지, 진학한다면 전문대에 진학하는지 4년제 이상의 일반대학에 진학하는지와 같은 더 큰 맥락에서의 부모의 소득효과를 보고자 한다. 국가의 여러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투자를 통해 대학 진학의 경제적 문턱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세대에서도 여전히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교육 여부와 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른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의 차이와 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국내

김안나&이병식(2008)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들의 경우 교육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적 경험과 진로 선택에 제약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보다는 2-3년제 전문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반대학교를 선택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이 낮을수록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의 학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 예체능 계열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필선&민인식(2015)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Ⅰ을 이용하여 부모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수능 성적,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 및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상승함을 보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자녀의 교육과 더불어 소득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모소득이 5분위에서 가장 높은 분위에 속하면 미래 자녀의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한 자녀보다 19% 정도 더 높는데, 이를 통해 부모 세대의 교육과 소득 특성이 자녀 세대까지 계승되는 현상을 보였다.

구인회(2003)에서는 부모의 실직과 소득 상실의 영향력이 자녀의 대학 입학확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였는데, 경제적 상실의 영향력은 절대적 소득 수준을 통제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소득 수준은 청소년의 교육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빈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여성일 경우 부모의 소득 상실과 소득 수준에 모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남성의 경우 부모의 소득 상실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

Carneiro & Heckman (2002)는 미국의 고등교육 차이를 개인의 변하지 않는 요소들(인지능력 등)과 경제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가정의 경제적 유동성 제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진학률 차이에 경제적 유동성 제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개인별 고등교육 차이를 주로 성적과 같은 경제적 변인 외의 개인적인 특성 변수로 설명하였다.

Vandenberghe 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정의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등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더 낮은 것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능력이나 동기, 교육수준과 같은 다른 영향들을 모두 통제해도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소득은 그 자체로 자녀의 교육수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헝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과 폴란드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부모의 소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Riphahn, R. T., & Schieferdecker, F. (2012)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독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과 교육은 자녀의 고등교육 확률을 함께 증가시키는 관계이며 자녀에게 미치는 둘의 영향력의 크기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고등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며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mi, J., & Bassett, R. M. (2014)는 고등교육에 있어 자본의 제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교육의 기회 증진과 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80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급속하게 상승하였지만 소득 수준별 교육 격차는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 대비 2009년의 고등교육 등록률을 비교하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고등교육 참여율이 상승하였으나 소득 분위별 고등교육의 참여 격차는 더 커져 전체 국민의 절대적 교육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사회적 불평등은 더 높아졌음을 보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전방위적 재정지원 정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낮은 소득 그룹에 대한 무료 학비 혹은 낮은 학비이며 두 번째는 장학금 혜택, 세 번째는 학생 대출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 2차, 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패널들의 가장 최신 정보인 5차 자료에 출신 고등학교 정보(1차 자료)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성적(2차 자료) 등을 붙여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5차 자료는 2020년을 조사 시점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만 21세, 대학교 3학년일 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데이터의 장점은 최신 데이터인 5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안정된 응답자들의 고등교육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1차와 2차 자료를 병합하여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상태 및 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의 기초 정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1차, 2차, 5차 모두 매칭된 응답자는 총 7,590명이며, ‘고등학교 중퇴(1명)’, ‘2~4년제 전문대 중퇴(71명)’, ‘4~6년제 대학교 졸업(1명)’, ‘4~6년제 대학교 중퇴(60명)’, ‘4~6년제 대학교 수료(3명)’, ‘대학원(석사) 재학(1명)’의 경우 규모가 작아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표 1> 데이터 구성

(단위: 명, %)

| | | 응답자 수 | 비율 |
|-------|--------------|-------|-------|
| 전체 | | 7,590 | 100 |
| 성별 | 남성 | 4,044 | 53.28 |
| | 여성 | 3,546 | 46.72 |
| 현재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1,891 | 24.91 |
| | 2~4년제 전문대 재학 | 568 | 7.48 |
| | 2~4년제 전문대 휴학 | 556 | 7.33 |
| | 2~4년제 전문대 졸업 | 486 | 6.4 |
| | 4~6년제 일반대 재학 | 2,277 | 30 |
| | 4~6년제 일반대 휴학 | 1,675 | 22.07 |

2. 변수 설명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은 <표 2>로 요약한다. 고등교육 여부와 그 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학생, 일반대학교 학생 세 그룹으로 나눈다. 전문대의 경우 졸업생이 포함되는 이유는 2년제에 재학하였다면 만 21세에 이미 졸업했을 수 있기에 포함한다. 독립변수는 부모소득 수준으로 부와 모 각각의 월 평균 실수령 소득을 합쳐 4분위로 나누었다. 과거 진학시점의 부모 소득이 아닌 현재(2021년) 시점의 부모 소득을 활용한 이유는 현재 소득은 과거 소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 소득이 자녀의 현재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일 시점의 소득변수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은 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인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 변수 | | 변수처리 |
|-------------------|------------------------|---|
| 종속변수 | 현재 학력 | 1: 고등학교 졸업 2: 2~4년제 전문대 재학, 휴학, 졸업 3: 4~6년제 일반대학 재학, 휴학 |
| 독립변수 | 부모 소득 분위 (4분위) |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월 평균 소득의 합 (실수령액 기준)을 4분위로 나눔 |
| 통제변수 | 성별 | 0: 여성, 1: 남성 |
| | 출신 고등학교 유형 | 1: 일반고, 2: 자율고, 3: 특성화고, 4: 과학고, 5: 외고(국제고), 6: 예술고, 7: 체육고, 8: 마이스터고 |
| |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 | 출신 계열 | 1:문과, 2:이과, 3:예체능, 4:직업 과정 |
| |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 | 질문: (학생에게 질문)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차 wave 자료) 1: 고등학교 졸업까지, 2: 대학 졸업까지 3: 직장을 구할 때까지, 4: 결혼할 때까지, 5: 평생 |
| | 부모와 미래에 관해 대화하는 정도 | 질문: 부모님(보호자)와 나의 1.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과 2.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합니까? (각 질문 당 5점 스케일로 응답) 두 질문의 응답치를 평균 계산 (숫자가 높을수록 대화의 빈도가 높음) |
| | 고3 1학기 내신 등급 (국어) | 1부터 9까지의 9점 스케일 해당 숫자는 해당 등급을 나타냄(1:1등급, 9:9등급) |
| | 고3 1학기 내신 등급 (수학) | |
| 고3 1학기 내신 등급 (영어) | | |

3. 분석 모형

본 분석은 종속변수가 3단계의 순서형 변수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대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며 모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한다.

$$edu_i = \alpha + \beta Q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i = 1, \dots, N \quad (1)$$

$$edu_i = \alpha + \beta_2 Q_{2i} + \beta_3 Q_{3i} + \beta_4 Q_{4i} + X_i' \gamma + \epsilon_i \quad i = 1, \dots, N \quad (2)$$

(1)번 모형은 개별 응답자(i)의 현재 학력(edu_i)가 종속변수이며, 부모의 소득 수준 4개 분위(Q_i)를 모두 포함한 것이 독립변수이다. (1)번 모형의 목적은 β 값을 추정하여 부모의 소득 1분위 상승에 따른 한계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만일 β 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라면, 이는 부모의 소득 분위가 1분위 상승함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X_i 는 개인의 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통제변수이며 ϵ_i 는 오차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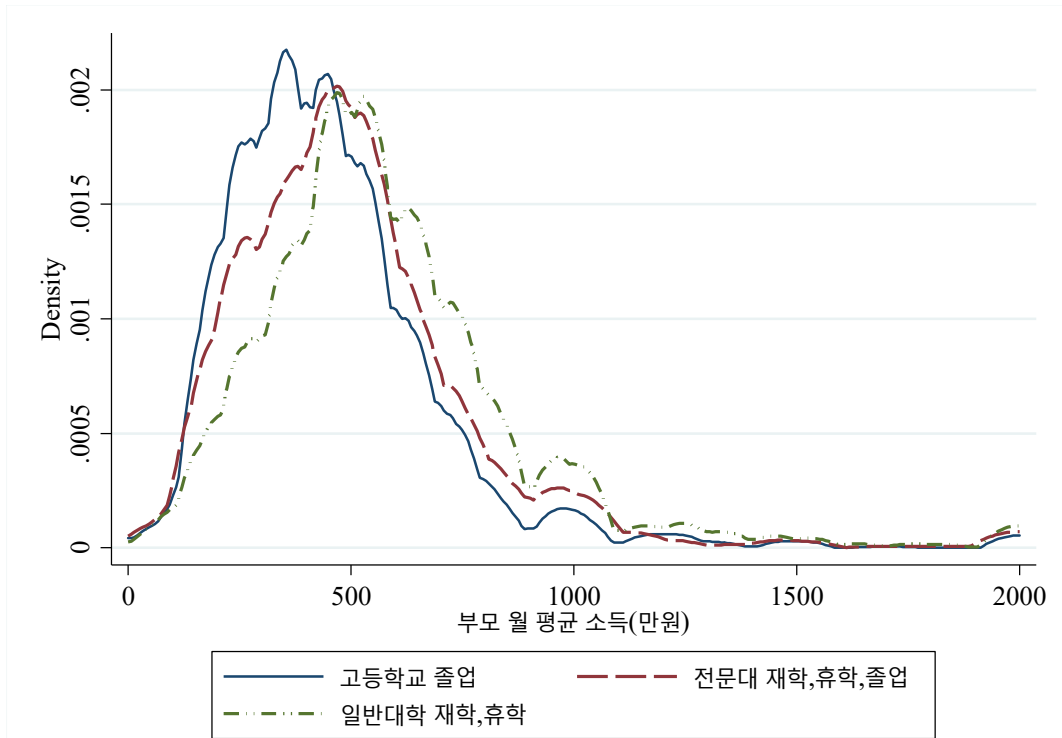
(2)번 모형의 경우 (1)번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형태만 달라진 것이다. (1)번 모형에서 부모의 소득 분위 4개가 모두 포함되었다면, (2)번 모형에서는 각각의 분위기를 더미형태로 포함하여 1분위(하위 25%) 대비 각각의 분위에 포함되었을 때 자녀들의 고등교육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1)과 (2)번 모형 모두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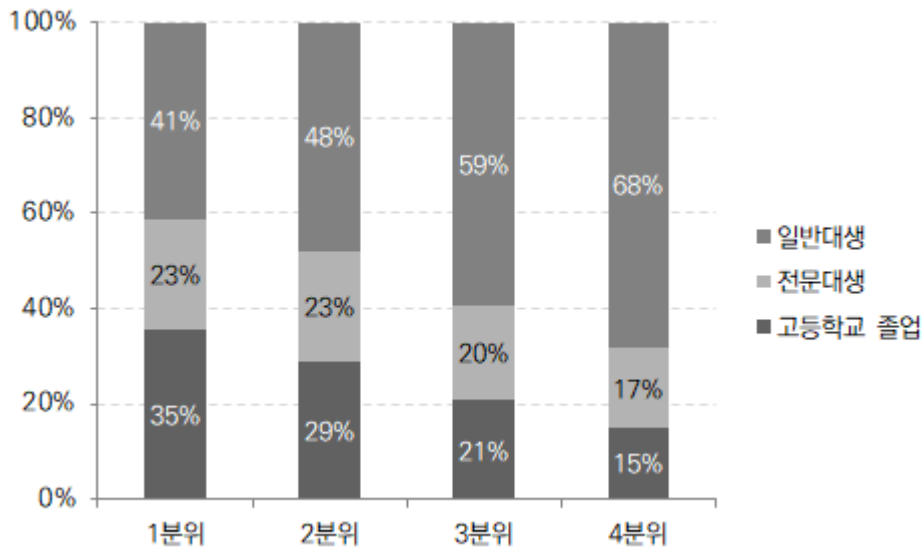
1. 기술 통계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과 부모의 소득 수준 간의 관계를 먼저 기술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자녀의 학력 수준에 따른 부모들의 월 평균 수입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다시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들의 월 수입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고등교육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주) 그래프의 가시성을 위해 부모 월 소득 2천만원 이상 관측치(48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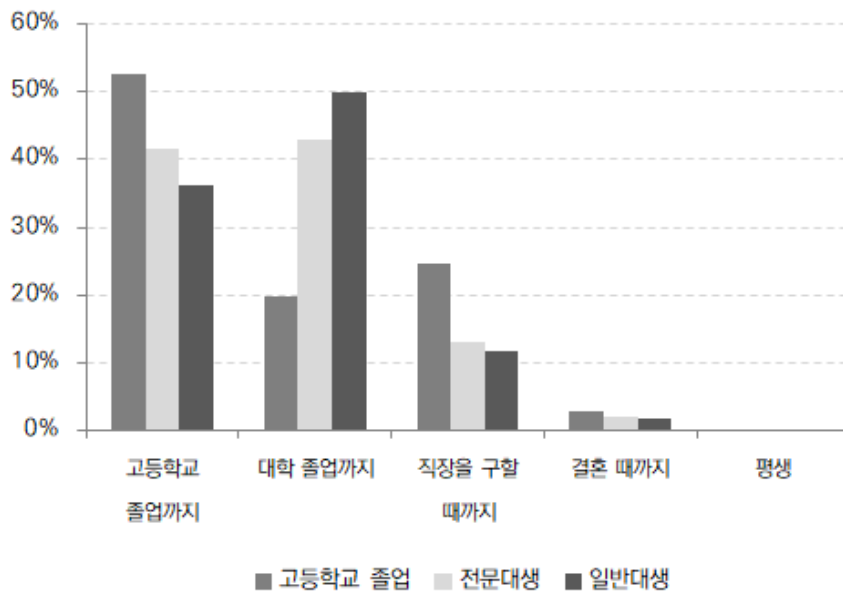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의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분포



[그림 2] 부모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 고등교육 수준

<그림 2>는 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른 자녀의 학력 수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1>과 유사한 함의를 가진다. 부모의 소득이 1분위인 경우 자녀의 35%가 고등학교 졸업에서 교육을 마치는 반면 4분위 그룹에서는 단 15%만이 자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1분위 그룹에서는 41%가 일반대학에 진학한 반면, 4분위 그룹에서는 68%가 일반대학에 진학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진학 비율은 낮아지며, 일반대학교 진학비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실질적 경제 수준과 별개로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따라 고등교육 진학상태가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 본 결과, 부모가 대학 까지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학생일수록 현재 학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한 내용에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2016년)에 응답한 내용임. (학력은 2020년 기준)

[그림 3]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기간에 따른 고등교육 수준

<그림 3>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자녀들의 50% 이상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일반대학에 재학하는 자녀의 50%는 과거에 부모가 대학 졸업까지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진학을 고민 및 결정하는 시기에 부모가 자신의 대학 졸업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일수록 미래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25%가 부모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업계고 혹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개 바로 취업을 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고등교육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할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실제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기초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부모소득은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열에서 (3)열로 감에 따라 통제변수가 포함되고 성적변수가 통제되면서 부모 소득이 고등교육 수준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모형1)

|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 (1) | (2) +통제변수 | (3) +성적변수 |
|---------------------|---------------------|---------------------|----------------------|
| 부모 소득분위 | 0.381*** (0.024) | 0.256*** (0.029) | 0.209*** (0.031) |
| 여성 | | 0.280*** (0.065) | 0.089 (0.070) |
| 출신고 유형 (Ref.일반고) | | | |
| 2. 자율고 | | 0.785*** (0.171) | 0.735*** (0.175) |
| 3. 특성화고 | | -0.163 (2.635) | -2.344*** (0.098) |
| 4. 과고 | | 3.277*** (0.718) | 2.727*** (0.726) |
| 5. 외고 | | 1.873*** (0.360) | 2.239*** (0.371) |
| 6. 예고 | | 1.260*** (0.330) | 1.031*** (0.359) |
| 7. 체고 | | 0.401 (0.287) | -0.143 (0.329) |

| 종속변수: | (1) | (2) | (3) |
|----------------------------|-----|---------------------|----------------------|
| 자녀 고등교육 수준 | | +통제변수 | +성적변수 |
| 8. 마이스터고 | | -1.840 (2.639) | -4.744*** (0.211) |
| 출신 계열 (Ref.문과) | | | |
| 2. 이과 | | 0.358*** (0.082) | 0.347*** (0.083) |
| 3. 예체능 | | -0.318 (0.212) | 0.201 (0.234) |
| 4. 직업과정 | | -1.967 (2.635) | 0.000 (.)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Ref.고등학교 까지) | | | |
| 2. 대학 졸업까지 | | 0.342*** (0.069) | 0.280*** (0.074) |
| 3. 직장을 구할 때까지 | | -0.028 (0.090) | -0.091 (0.098) |
| 4. 결혼 때까지 | | 0.032 (0.212) | 0.040 (0.222) |
| 5. 평생 | | 1.003 (0.794) | 1.134 (0.911) |
| 부모와 진학 관련 대화 한 정도 | | 0.046 (0.031) | -0.013 (0.033) |
| 내신등급(국어) | | | -0.229*** (0.036) |
| 내신등급(수학) | | | -0.144*** (0.025) |
| 내신등급(영어) | | | -0.156*** (0.030) |
| 출신고 지역 Dummy | N | Y | Y |
| | N | 5395 | 5394 |
| | | | 5003 |

주) * p<0.1 ** p<0.05 *** p<0.01

즉,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더 높은 고등교육 수준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표 3>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효과이다. 진학을 고민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기대한 학생보다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자체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간접적 매커니즘들(출신 고등학교, 성적, 심리적 경제력 의지 정도)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그 영향력이 여전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부모의 자본력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학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의 소득변수를 활용하여 부모소득은 성인이 된 이후의 자녀의 고등교육에 꾸준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모형2)

|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 (1) | (2) +통제변수 | (3) +성적변수 |
|-------------------------------|---------------------|---------------------|---------------------|
| 부모소득 수준 (Ref. 소득 1분위(하위 25%)) | | | |
| 소득 2분위 | 0.284*** (0.076) | 0.179** (0.088) | 0.146 (0.095) |
| 소득 3분위 | 0.737*** (0.074) | 0.492*** (0.085) | 0.453*** (0.091) |
| 소득 4분위 (상위 25%) | 1.122*** (0.077) | 0.749*** (0.092) | 0.593*** (0.098) |
| 통제변수 | N | Y | Y |
| 성적변수 | N | N | Y |
| 출신고 지역 Dummy | N | Y | Y |
| N | 5395 | 5394 | 5003 |

<표 4>는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3>에서는 소득 분위가 1단계 상승하는 것에 대한 평균적인 한계효과를 알 수 있었다면, <표 4>에서는 소득 분위가 2,3,4분위 일 때, 1분위 그룹 대비 상대적인 소득 분위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열에서 (3)열로 가면서 통제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소득 분위의 상대적 효과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열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1분위 그룹일 경우와 2분위일 경우가 고등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3분위와 4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 그룹에 속한 자녀들에 비해 고등교육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3분위와 4분위의 영향력 계수는 각각 0.453과 0.593으로 3분위와 4분위 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분위 계수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25%에 해당했을 때 대비하여 자녀가 일반대학에 재학할 로그 상대확률이 (log-odds) 0.593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추가분석 결과

|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 (1) | (2) |
|------------------|-------------------|------------------|
| 부모 월 평균 소득액(백만원) | 0.028* (0.016) | |
| 근로소득 외 부모 소득수준 | | 0.027 (0.017) |
| 통제변수 포함 여부 | Y | Y |
| N | 5003 | 5708 |

주) * p<0.1 ** p<0.05 *** p<0.01

부모의 소득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활용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소득 분위 대신 월 평균 소득액 자체를 활용하였으며(백만 원 단위), 부모의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수준을 활용하였다.

<표 5>의 첫 번째 열의 결과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액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데 계수의 크기나 유의성이 분위기를 활용하였을 때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액 변수가 분위 변수보다 소득 간 차이가 더 연속적이며, 변수의 단위가 백만 원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모의 월 소득액이 백만 원 증가하는 것도 여전히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 증가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표 5>의 두 번째 열에서는 부모의 근로소득 외 월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수준

을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없음’에서부터 ‘월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총 1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 소득 여부와 그 수준의 경우 자녀의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구간별 관측치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4>와 <표 5>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은 부모소득 액수에 비례하여 상승하기보다는 그 수준이 더 중요하며,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 자본소득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부모의 소득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표 6>의 성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모 소득 수준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제변수들 사이에도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등학교 유형에 있어서는 자율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 대비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 선택에 있어서는 이과를 선택했을 때의 대학 진학 확률이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성별 분석 결과

|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 (1) 남성 | (2) 여성 |
|---------------------|----------------------|----------------------|
| 부모 소득분위 | 0.226*** (0.043) | 0.188*** (0.044) |
| 출신고 유형 (Ref. 일반고) | | |
| 2. 자율고 | 1.035*** (0.251) | 0.474* (0.250) |
| 3. 특성화고 | -2.193*** (0.141) | -2.572*** (0.143) |
| 4. 과고 | 2.962*** (1.017) | 2.215** (1.016) |
| 5. 외고 | 2.265*** (0.569) | 2.217*** (0.481) |
| 6. 예고 | 1.511** (0.632) | 0.751 (0.458) |
| 7. 체고 | 0.034 (0.431) | -0.080 (0.548) |

| 종속변수: | (1) | (2) |
|----------------------------|----------------------|----------------------|
| 자녀 고등교육 수준 | 남성 | 여성 |
| 8. 마이스터고 | -4.657*** (0.255) | -4.498*** (0.411) |
| 출신 계열 (Ref.문과) | | |
| 2. 이과 | 0.489*** (0.120) | 0.194* (0.115) |
| 3. 예체능 | 0.009 (0.344) | 0.316 (0.331) |
| 4. 직업과정 | 0.000 (.) | 0.000 (.)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Ref.고등학교 까지) | | |
| 2. 대학 졸업까지 | 0.254** (0.103) | 0.310*** (0.108) |
| 3. 직장을 구할 때까지 | -0.086 (0.134) | -0.114 (0.146) |
| 4. 결혼 때까지 | -0.292 (0.425) | 0.264 (0.268) |
| 5. 평생 | 1.861** (0.855) | -0.652 (1.332) |
| 부모와 진학 관련 대화 한 정도 | 0.015 (0.048) | -0.019 (0.046) |
| 내신등급(국어) | -0.240*** (0.050) | -0.224*** (0.053) |
| 내신등급(수학) | -0.124*** (0.035) | -0.163*** (0.038) |
| 내신등급(영어) | -0.167*** (0.041) | -0.146*** (0.045) |
| 출신고 지역 Dummy | Y | Y |
| N | 2630 | 2373 |

주) * p<0.1 ** p<0.05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소득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경로를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절대적인 소득의 크기를 통제한 이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경제적 지원 정도가 고등교육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경제적 제약 하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대학까지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조건이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외의 심리적 영향력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여성 자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시사하는 점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 이후에도 2020년에 여전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데이터의 조사 대상자들은 99년생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국가 차원의 재정적 교육지원을 통해 일반대학 진학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진 세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고등교육 여부와 그 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성인기의 고등교육 기회가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계층 이동성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기관을 넘어 장기적 커리어 개발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성인기 고등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영향력을 내포하는 것이며 교육의 성격이 계층 간 사다리가 아닌 장벽의 역할로 변질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앞서 말했듯 단순히 자녀의 교육 수준에서 끝나는 현상이 아닌 자녀의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갈림길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구인회.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김안나 & 이병식. (2008).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최필선 & 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Carneiro, P., & Heckman, J. J. (2002). The evidence on credit constraints in post secondary schooling. *The Economic Journal*, 112(482), 705-734.
- Lindemann, K., & Gangl, M. (2020). Parental unemployment and the transition into tertiary education: can institutions moderate the adverse effects?. *Social forces*, 99(2), 616-647.
- Riphahn, R. T., & Schieferdecker, F. (2012). The transition to tertiary education and parental background over ti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5(2), 635-675.
- Salmi, J., & Bassett, R. M. (2014). The equity imperative in tertiary education: Promoting fairness and efficienc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60(3), 361-377.
- Vandenberghe, V. (2007). Family Income and Tertiary Education Attendance across the EU: An empirical assessment using sibling data. LSE STICERD Research Paper No. CASE123.
- Vandenberghe, V.. Does Current Parental Income Impact on the Decision to Attend Tertiary Education in Europe.

❖ Abstract ❖

The Impact of Parental Income on Children's Tertiary Education Level

Choi, Soohyun (KRIVET)

This article tried to see whether children's tertiary education level is affected by parent's income, using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 II).

The results show parental incom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level, meaning the higher the parent's income,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their children will receive the better education. Interestingly, regardless of the actual income level, the expected period of parental financial support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tertiary education level.

Subgroup estimation results by sex show this parental income effect is greater for males than females. In the case of female, they are more affected by the expected period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than the male.

This study point out that the opportunity to get tertiary education is still differ by their parent's income level and this impact may vary depending on the child's gender.

Key words: keep, social mobility, parental income, tertiary education